

■ 초박빙 지지율 속朴-文 패밀리는 마지막 '6일 전쟁'

朴 "부동층 흡수" 文 "투표율 제고" 총력

이정희 사퇴여부·40대·수도권 표심 핵심 변수

대권 고지를 향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괴 말리는 마지막 '6일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그동안 오차범위 내외의 박빙 판세가 유지된 가운데 1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됨에 따라 양 측은 서로가 유리한 국면이라며 막판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각 언론사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는 42.8~48.9%, 문 후보는 41.4~47.5%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대부분 조사에서 박 후보의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는 흐름을 보였고, 구체적인 수치 상으로는 0.5% 포인트 차의 초박빙에서 오차범위 밖인 6.8% 포인트까지 달라졌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 결과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무응답층, 즉 부동층이 여전히 1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층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40대와 수도권 표심도 대선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쓸림 현상이 눈에 띠는 가운데 두 후보에 대한 40대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고, 지역별로도 수도권 판세가 초박빙 양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우세 국면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대세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보고 투표를 제고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상 이날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외부에 공표할 수 없어 이를바 '깜깜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양측의 대국민 여론전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을 다시 부각시키며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조직적인 문 후보 비방을 인터넷 게재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전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안보'가 중요 이슈로 떠오른 만

큼 두 후보는 자신의 안보위기 관리 능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의 접전 양상 속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후보직 사퇴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의 '1% 지지율'이 승부를 가를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선 막판 전반적인 혼전 양상이 펼쳐지면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전 지지율을 우위에 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정치권의 통설이 이번에도 적용될지, 아니면 뒤집힐 것 인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일인 13일 오전 광주 31사단내 비전센터에 마련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군장병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정원 다른 직원들도 낙선 활동 의혹

민주, 추가 제보 확보 공세 강화

영향을 줄 수 있어 김씨 활동만 수사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김씨의 IP 주소를 확보, 어느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확인해 국민에게 보고하면 될 일"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후보도 이날 일자리 정책 기자

회견 후 문답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기관이 여론을 조작, 선거를 좌우지하고 개입해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는 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아직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고 객관적으로도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가 자신을 장시간 오피스텔에 가둬둔 혐의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김씨가 자신을 오피스텔 안에 갇기로 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김씨의 변호인이 오늘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김씨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김한길 민주통합당 전 최고위원은 13일 "이번 대선 승패는 호남의 투표율이 결정할 것이다. 호남의 투표율이 80%를 넘으면 대선에서 확실히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40대와 서울, 부산의 득표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남의 투표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호남에서 투표율이 80%를 넘으면 확실히 대선에서

"호남 투표율 80% 넘으면 30만표 차이로 文이 승리"

■ 박영선 민주 선대본부장, 광주일보 단독 인터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박영선 상임공동선대본부장은 13일 "이번 대선이 힘든 싸움이긴 하지만, 호남 투표율이 80%를 넘으면 30만표 차이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국 투표율이 70% 이상이면 적게는 10만표, 많게는 30만표 차이로 이길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

며 "남은 선거일까지 숨은 표들이 문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부산·경남지역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광주가 걱정"이라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만들어낸 그 열정으로 광주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투표에 참여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安 지원, 짧은총 투표 참여 높아질 것"

"북 로켓발사 보수층 결집 영향 미미"

와 전남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고, 문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높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사상 첫 제외동포 대선 투표가 71%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부재자 투표에서도 역대 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즐거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추세라면 투표율이 70%를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제 윤여준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의 문 후보 찬조연설의 반응이 좋다. 특히 중도층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성 후보는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안보문제에 불안감이 커질 것이며, 특히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일부 수석들이 그동안 북한 도발과 관련, 벙커에서 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특전사 출신의 문 후보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본부장은 "남은 선거기간 부산과 수도권을 중심 공략하고, 이번 선거에서 변수가 될 40대 층에 대한 공략과 20대, 30대의 투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한길 "호남 유권자들이 역사 물줄기 또 다시 바꿔줘야"

김한길 민주통합당 전 최고위원은 13일 "이번 대선 승패는 호남의 투표율이 결정할 것이다. 호남의 투표율이 80%를 넘으면 대선에서 확실히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호남 유권자들이 한 번만 결집해주시면 이번 대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미미 보수층이 농축대로 몽쳤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50대 이상의 장년층, 노년층의 일부는 동요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성 후보는 군대를 가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호남 유권자들이 한 번만 결집해주시면 이번 대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항후 표심 변화에 대해서는 "6·25전쟁 이후 보수정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북한군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본 적 없다"며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법원판결문
- 각종채권
- 물품대금
- 대여금
- 운송료
- 구상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추천 물건 상당전화
010-5879-0005

| | |
|------------------|--------------------|
| 수기동 [근린시설 4층] | 주유소 [어수 출입] |
| 대652㎡, 건2387㎡ | 대2373㎡, 건231㎡ |
| 김정기 14억 최저가 4억5천 | 김정기 895천 최저가 3억8천 |
| 나주남평 [주유소] | 신안해제 [횡단, 판매시설] |
| 대4428㎡, 건553㎡ | 대4706㎡, 건123㎡ |
| 김정기 10억6천 | 김정기 18억 |
| 최저가 6억8천 | 최저가 8억 |
| 전복김제 [물류센터] | 전주시티진구 [유동주점] |
| 대8076㎡, 건5004㎡ | 대665㎡, 건988㎡ |
| 김정기 25억 최저가 6억5천 | 김정기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
| 화순 이양 [공장] | 원룸 [게임동] |
| 대6536㎡, 건206㎡ | 대333㎡, 건803㎡ |
| 김정기 9억8천 | 김정기 6억7천 |
| 최저가 2억8천 | 최저가 3억7천 |
| 장강로 [근린주택] | 목포양평동 [수락관] |
| 대215㎡, 건306㎡ | 대178㎡, 건408㎡ |
| 김정기 4억6천 | 김정기 4억8천 |
| 최저가 2억 | 최저가 1억7천 |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중순open 예정인 (주)술향기값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동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십니다.

* 천도(여)2명, 설계(여)1명, 흙토성(여)2명, 배(여)2명, 경(여)1명, 영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을 풍립리 171번지 서류접수실 면접·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 함께할 운영자 및 연회원을 모집합니다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

감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디자인주택(원룸, 투룸, 썬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거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20평 매도가 8억5천만 원

〈상무지구 토지매매〉